● 타운뉴스 칼럼

도산(島山)을 찾아서

타운뉴스 발행인

한국에서 친구가 왔다. 중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는 성공회 신부로 은퇴하고 지금은 강원도 동해시의 한마음 병원에서 원목으로 봉직하고 있다. 친구가 시카고 성공회 한인교회의 초빙을 받아 가는 길에 LA에 들려 일주일 정 도 머무르다 간다고 두어 달 전에 알려왔다. 'LA에 머무 르는 동안 가고 싶은 곳이 있는가?' 물으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살던 곳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. LA를 방문했던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곳이라 의아 했으나-부끄럽지만 필자도 가본적이 없다-어려서부터 민족관, 국가관이 확고했던 그를 보아 왔던지라 그 다운 생각이라고 여겼다.

우리는 중학교 1학년,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. 친구는 말을 더듬었다. 그런 친구와 필자가 학급 대표로 교내 웅 변대회에 나갔었다. 그런데 필자는 입상조차 못했는데 친 구는 일등을 했다. 어떻게 말을 더듬지 않고 웅변을 했는 가? 날고 기는 친구들을 젖히고 일등까지 할 수 있었는가? 궁금했었다.

성인이 되어서야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다. 친구는 말더듬 을 고치기 위해 웅변학원에 다녔다. 그래서 웅변할 때는 안 더듬게 되었다고 했다. 평소 말하는 것과 웅변할 때 말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. 친 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었다.

LA 공항에서 친구를 픽업해서 오는 길에 산페드로 시 에 있는 우정의 종각으로 갔다. 예상대로 친구는 좋아했 다.이 종은 1979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두 나라의 우의와 신의를 두텁게 하는 뜻에서 미합중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기증한 우정의 선물이라는데 큰 가치가 있다.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종각 앞에서 친 구는 감격에 겨워 뜨거운 애국심을 담아 기도했다.

다음날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흔적을 찾아 떠났다. 샌프 란시스코에서 한인친목회와 공립협회를 조직한 도산은 1904년 남가주리버사이드로이주해 오렌지 농장에서 일 했다. 도산은 일자리가 많은 오렌지농장으로 한인들을 불러 모았고 마을을 만들었다.이 마을을 '과차과 캠프'라 고 불렀다. 도산은 "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"이라며 솔선수범했다. 일설에 의 하면 파차파 캠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최대 300명 에 달했다고 한다. 미국 내 한인 타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, 혹자는 좀 과장하여 '도산 공화국' 이라고 부르기 도 했다. 지금은 도시 개발로 과치과 캠프가 있었던 오렌 지 농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, 파치파 캠프가 있 었던 곳임을 알려주는 쇠로 된 표시판이 외롭게 지키고 있을 뿐이다. 표시판을 한동안 바라다보고 있던 친구는

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힘차게 기도했다.

파차파 캠프 표시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-로스앤젤 레스 동쪽 54마일 지점-에 리버사이드시 시청 앞 광장 에 있는 안창호 선생의 동상으로 자리를 옮겼다. 양복을 잘 차려 입은 도산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손에는 책을 들 고 있었다.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가까이 했던 도산의 모 습을 옮겨 놓은 듯하다.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를 비롯 해 멕시코의 지도자 산체스,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동상 들도 눈에 띄었다.

2019년 3월 리버사이드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예술인들이 극본, 음악, 영상, 안무, 등 모든 것을 창작해서 뮤지컬. '도산' 을 무대에 올렸다. 19살의 청년 안창호가 1898년 평양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, 정혼자 혜련 과 만나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,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 에서 움튼 대한 독립의 희망과 대한인국민회와 공립협회 등에서 독립 운동의 활동상을 비롯해 미국에 남겨진 가 족들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 등, 파란 만장한 도산의 일생을 담았다.

뮤지컬. '도산' 은 2019년 8월 LA 도심의 윌셔 이벨 극장 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새롭게 선보였다. 이후 코 로나 팬테믹으로 잠시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8월,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.

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를 맡기 전까지 미주 한인사회를 이끈 도산 안창호의 흔 적은 미주 곳곳에 남아 있다. 특히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의 우체국을 '도산 안창호 우체국' 으로 명명했고 도 산의 이름을 붙인 입체교차로와 광장도 있다.

2018년 8월,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매년 11월 9일을 '도 산 안창호의 날(Dosan Ahn Chang Ho Day)' 로지정해 기 념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. 이는 도산이 남긴 정신적, 물질적 유산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보존, 계승하고 널리 알릴 가치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확인한 것이다.

도산은 한국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민족의 스승이 자 사상가이며 독립운동 지도자였다. 무실역행(務實力 行) 충의용감(忠義勇敢)으로 대변되는 그의 사상과 행적 은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인류의 정신적 자산이자 실천 가치임이 분명하다.

안창호 선생의 동상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 는 친구를 보면서 필자도 그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큰 보 람을 얻길 기원했다.

chahn@townnewsusa.com

타운뉴스

제1469호 목차



타운뉴스 칼럼	13
커뮤니티 소식	15,17,19
나는야 1,5세 아줌마	20
법률	21
여행	23
세상에 이런 일이	27
전문인 칼럼	28,29,43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	29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	30/56,30/56
건강	37,43,52
깔깔	38
부동산/경제	39
한인업소 안내지도	44,46,58,60,62
요리	45
그림여행	47
종교	49
연예	51,53
안내광고	54,55
Domestic	56
여성	57,59

매장·화장·묘지주선·이장·장례보험등

-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(LA, OC-20분)
-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.

24시간 대표: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., Downey, CA 90240 (562)622-9393



Keon-Jung Kim Dental Corp.

IMPLANT, COSMETIC, ORTHODONTIC &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.timkimdental.com

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

일반 · 미용치과 전문

Maria Capiral, DDS William Wang, DDS Nguyen Diemphi, DDS

교정치과 전문

Jin Kim, DDS, MS

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(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)

-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
-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

38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

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

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

■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· 무출혈 · 무통 잇몸치료

Address 2492 Walnut Ave. #200, Tustin, CA 92780 tel. 714-760-4988 949-679-6000 (San Diego) 760-757-9876 760-479-9876







